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

박재은* · 유난숙**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self-identity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mily social capital

Park, Jae Eun* · Yu, Nan Sook**1)

*Alumna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self-identity,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family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and examined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self-identity and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self-identity. Data used for analysis was from 7th grade student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n 2012.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program for demographic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was slightly higher for self-identity,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the average was lower for misconduct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second, there was a weak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bully victimiz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Thir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bullying and bully victimization) on self-identity,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Bullying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and bully victimization had a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both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fourth,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had a statistically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self-identity; therefore, it signif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 victimization and self-identity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which means that the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elf-identity of the adolescents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1) 교신저자: Yu, Nan Sook, Yongbong-ro 77, Buk-gu, Gwangju, 500-797,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Key words: 자아정체감(Self-identity), 학교폭력 경험(School violence experience), 가족 내 사회자본(Family social capita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폭력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같이 보내는 청소년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반복, 지속되는 특성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교우관계, 또래집단의 역할이 커지는데, 또래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im, Yi, & Hong, 2006; Lee & Chung, 1999; Lee & Yoo, 2005).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사회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도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특히,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은 미래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므로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인 갈등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자아정체감 발달을 핵심 역량으로 보고, 1~3학년군의 대안원 ‘청소년의 이해’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009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보면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제시하였고(MEST, 2009),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는 ‘발달’과 ‘관계’를 핵심개념으로 보고 ‘발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또래문화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통한 건강한 또래관계 발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계’에서는 가족관계의 갈등원인, 배경, 해결방안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Im & Jeon, 2015). 이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자아존중감과 가족 및 또래관계가 중요한 연결요소임을 알 수

있고 친구관계나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연구들을 분류해 보면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가족 변인, 가족 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로 구분되며, 개인적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는 성별(M-A Lee, 2006; Yang, 2004), 종교(An, 2010), 학업성적(An, 2010; Jang, 2009; Park, 2002; Shin, 2010; Yun, 1989), 진로(Hong & Yoo, 2008; Jang, 2009; Jeong, 2004; Kim, 2003; Lee, 2008; Lee, 2012) 등이 있다. 환경적 변인 중 가족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는 부모의 양육태도(Hwang, 2013; Jeon, 2014; Kong, 2005; Lee, 1994; Lee, 2005), 부모자녀 관계(Ahn, Song, & Lee, 2014; Kim, 2002; Song, 2014), 형제자매 관계(Kim, 2002), 부모 학력(Hong & Yoo, 2008; Seo, 1975; Yun, 1989), 부모 경제소득(Kim & Kim, 2001; Min, Choi, & Kim, 2003) 등이 있다. 한편, 환경적 변인 중 가족 외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는 청소년들의 제2의 생활터전인 학교 안에서의 또래관계(Ahn et al., 2014; An, 2010; Joo, 2014; Park, 2000), 학교폭력과 비행(An, 2010; Cho, 2014; Kim, 2002; Lee & Chung, 1999; Lee, 2006; Park & Lee, 2000; Seo, 2014; Suh, 1998; Yoon, 2015) 등이 있다.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낮추지만(Lee & Chung, 1999),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Hwang, 2013; Yun, 2001).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Lee & Park, 2012). Coleman(1990)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개념화시키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관심, 지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와 Park(2012)은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가족내 사회자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Yeom과 Choi(2014)는 가족 내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우울을 직접 감소

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가해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가정 교과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2015 기술·가정 교과서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학교폭력의 비행경험에 관련된 특징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Um, 2000). 학교폭력 경험

의 유무를 봤을 때도 무경험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고 가해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정체감(안정성, 자기수용성, 대인관계)이 낮았다(Lee & Chung, 1999).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적응, 정신건강, 사회정서 발달인 부적응 측면에서 공격성과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받고(Kim et al., 2006; Seo, 2014), Kim(2002)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낮은 자아정체감과 비행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방해를 받게 되면 정체감 혼돈과 함께 좌절감과 불안함 심리로 인해 우울과 비행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하였다(An, 2010). Suh(1998)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Choi(2012)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하위변인 중, 주체성과 주도성이 공격성에 대하여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가해경험이 올라갈수록 자아정체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하위변인에서 나타난 정적인 상관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하위변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함을 시사한다.

또래관계에서 또래예착의 경우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써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Ahn et al., 2014), Cho(2014)도 또래관계와 안정적 사회정서가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와의 관계와 공격성 또한 상당히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리적 혼란이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 안에서 또래를 향한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Kim, 2002), 또래관계와 비행의 동조행위 또한 관련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Kim, Oh, & Yoon, 1991). Lee(2008)은 학교폭력에서 또래공격의 피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과 불안을 야기하며 학교생활 전반에 부적응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였고, O'moore와 Hillery(1991)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은 무경험 아동들에 비해 불안해하고 덜 행복해하며 스스로 인기가 없고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등 자아존중감과 만족감이 낮다고 하였다(Lee & Chung, 1999).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Kim(2013)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한 학기에서 한 학년으로 계속되기도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시작되어 고등학교까지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해학생의 후유증이 크며 이런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은 무경험 및 일시적 피해 학생들보다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성,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정체감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은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하며(Cho, 2014; Jeong, 1997)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서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 2014; Kim et al., 2006).

이처럼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지속적인 경험은 자아정체감 이외에도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격동기인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보편화되고 집단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문제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발달 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폭력경험은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을 방해하고 그 중 자아정체감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예측되며 심각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예방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가족 내 사회자본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가족 내 사회자본과 자아정체감의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관심, 애정, 방임)와 부모자녀의 관계(자녀의 친구인지, 대화, 신뢰, 유대감, 가족간의 응집력,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졌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 관련한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육적 기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관련됨을 보여준 Lee(1999)와, Park과 Uh(1994)의

자아정체감 관련변인으로 성별, 학년, 종교유무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가족 내의 자율감, 친밀감이 긍정적인수록 자아정체감이 안정됨을 설명한 연구가 있다(Jeong, 2005). Lee와 Lee(2012)도 부모는 자녀의 성격, 자아개념 및 행동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적 건강성을 주어 자아정체감을 높이는 가정환경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Lee, 2002), 양육방식에서 방임과 학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학교적응력이 좋았다(NYPI, 2012). 또한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Lee, 2005).

부모자녀를 중심으로 본 가족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연구로, Yun(2001)은 부모자녀의 사랑과 격려의 신뢰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응집력과 표현력이 우울감을 줄여주고, 자아정체감을 상승하게 하며(Joung & Oh, 2001), 가족의 응집성을 비롯한 가정의 영향(Bae, 1993; Jung, 1998)이 자아정체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 관계에서도 가족성원간의 상호태도, 가정의 응집력, 친애, 자율 등이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Kim, 2009). 부모의 자녀친구인 지와 자아정체감의 연구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태도가 중요하며 자녀의 또래친구와의 관계나 활동을 잘 알고 지지적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 친밀감을 가질 때 자신감이 상승하여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효과가 있고(Lee, 2008),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많이 알수록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NYPI, 2012).

가족은 개인이 사회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관계가 사회자본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과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자녀의 정서 안정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도와야 한다(Park, Lee, & Chun, 2008). Park 외(2008)는 가정 사회자본이 풍부한 청소년일수록 교육성과도 높고, 자아 개념, 교육적, 심리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부모자녀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하여 아

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말한 연구(Shin, 2010)도 있다.

이처럼 자아정체감과 가족 내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통제, 방임, 관심, 애정, 신뢰)와 부모자녀와의 관계(자녀의 친구인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신뢰, 응집력, 가정의 심리적 환경)를 중심으로 자아정체감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져 왔다. 이는 부모의 학력 또는 경제적 능력이 높아도 자녀에게 애정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둘 사이의 유대감이 약하다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Kim,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족 내 사회자본은 자아정체감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부모자녀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올바르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관계 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야 하고 성장과 발달 심리학적 수준에 맞는 적절한 조연과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Park,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자녀친구인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부모자

녀 관계의 소중함을 인지시키고 학교폭력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심어주어 손상된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고 자아정체감의 이해와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자료 중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중1패널의 3차조사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중1패널의 3차조사 패널 데이터가 사용된 이유는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된 변수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은 부모가 응답하였고, 성별과 또래애착은 자녀가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자는 전체 2,259명으로 성별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140 (50.5)		
	Female	1,119 (49.5)		
Academic attainment Father	Below High school	77 (3.8)		
	High school	837 (40.8)		
	College	208 (10.1)		
	University	828 (40.3)		
	Graduate school	103 (5.0)		
Mother	Below High school	66 (3.2)		
	High school	1,133 (54.3)		
	College	211 (10.1)		
	University	639 (30.6)		
	Graduate school	37 (1.8)		
Variables	N	M(SD)	Min.	Max.
Family income*	2,180	4,684.66 (2,719.06)	0	40,000
Peer attachment	2,255	3.04 (0.45)	1	4

*unit: 10,000won

로는 남학생이 1,140명(50.5%), 여학생이 1,119명(49.5%)으로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고졸 837명(40.8%), 대졸 828명(40.3%), 전문대졸 208명(10.1%), 대학원졸 이상 103명(5.0%), 중졸이하 77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 1,133명(54.3%), 대졸 639명(30.6%), 전문대졸 211명(10.1%)의 순은 같았으나, 중졸이하 66명(3.2%)가 대학원졸 37명(1.8%)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 연간소득은 총 2,180명이 응답 하였으며, 평균 4,684.66 (단위: 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포래에착은 2,255명이 응답하였으며 4점 만점에서 평균 3.04로 다소 높게 나왔다.

2.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문항은 Song(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미래 확신성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목표 지향성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주도성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능동성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 주체성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 친밀성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 안정성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로 구성하였고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 하였고, 일부 문항은 역산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도록 구성하였다. 자아정체감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29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을 비행에 관련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비행 가해경험 14문항과 비행 피해경험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등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가해경험 여부에 ‘0’과 ‘1’로 응답하게 하였다.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뺏 뜯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가해경험 여부에 ‘0’과 ‘1’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비행 가해경험 빈도는 비행 가해경험 14가지를 합하여 총점 14점, 비행 피해경험 빈도는 비행 피해경험 7가지를 합하여 총점 7점으로 변수계산을 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이용된 비행 가해경험과 비행 피해경험 변수는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를 이용하여 리코딩하였다. 즉,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가 1이상인 경우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로 리코딩하였으며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가 0인 경우 경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리코딩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비행 가해 .666, 비행피해 .698로 나타났다.

3) 가족 내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가족 내 사회자본을 투입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정과 부모의 친구인지로 선정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선정은 Coleman(1988)이 제시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구조(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과외여부, 전학 및 이사 횟수), 관계(학습조력 및 지원, 자극적 교육환경, 부모와의 대화), 인지(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 외 성인 가족의 존재여부와 관계, 자녀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로 구성된 Kim(2008)의 연구와, 사회자본 가운데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등을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분류한 연구(Lee, 2011)를 참고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문항은 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Huh(2000), Kim(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것에서 부합된 설문 문항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측정 항목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영역 중 부모자녀의 관계

적 측면의 관심에정은 양육방식의 방향 4문항으로, 인지 측면의 자녀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 부분은 부모친구관계 항목 3문항으로 선정하여 2개영역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설문 문항을 보면 부모의 관심에정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등 4문항이고, 부모의 친구 인지도는 자녀 친구에 대한 인지도 1문항, 부모님이 친구를 만난 경험 1문항, 부모님의 친구 선호도 1문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에정, 부모의 자녀친구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 수준이 높도록 구성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부모의 관심에정 .758, 부모의 친구인지도 .6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패널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을 사용하였다. 패널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중요 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로 그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비행 가해 및 피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에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주효과를 살펴봤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성별(남자=0, 여자=1), 최종학력 부친 및 모친(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은 이분형 변수이고, 연간소득, 토래애착은 연속형 변수이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토래애착이 통제변수로 사용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Ahn et al., 2014; An, 2010; Kong, 2005; Oh & Song, 2012; S Shin, 2010),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아버지의 학력 수준보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Hong & Yoo, 2008; Yun, 1989),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더 발달한다는 연구(Hwang, 2005; Im, 2006; S Shin, 2010), 긍정적인 토래관계를 형성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연구(An, 2010; Ahn et al., 2014; Hwang, 2013; Roh, 2003) 등이 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 가해경험은 비행 가해경험 14문항의 총합, 비행 피해경험은 비행 피해경험 7문항의 총합),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에정, 부모의 친구인지)은 모두 연속형 변수이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Durbin-Watson값은 1.964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독립 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본 결과 VIF가 최소 1.015에서 최대 1.757로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에정 및 친구인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하였으며, 주요 변수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실행되었다.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에정 및 친구인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

Table 2. Descriptive Results of Variables

N=2,259

Variable		M(SD)	Max
Self-identity		2.63(0.41)	4
School violence	Frequency of bullying experience	0.30(0.86)	14
	Frequency of bully victimization experience	0.14(0.58)	7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3.16(0.56)	4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3.00(0.43)	4

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비행 가해경험 빈도는 14점 만점에 평균 0.30이고, 비행 피해경험 빈도는 7점 만점에 평균 0.14로 대다수의 응답학생이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비행 가해경험 여부는 '있다'가 294명(13.0%), '없다'가 1,965명(87.0%)이고, 비행 피해경험 여부는 '있다'가 108명(4.8%), '없다'가 2,151명(95.2%)로 대부분이 학교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가족 내 사회자본에 속하는 부모의 관심애정은 4점 만점에 평균 3.16이고, 부모의 친구인지도 4점 만점에 평균 3.0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상관수준이 다소 낮은 하지만, 비행피해($r=-.073, p<.01$), 부모의 관심애정($r=.232, p<.001$), 부모의 친구인지($r=.132, p<.01$)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과 비행 피해경험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관심애정 및 부모의 친구인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성별, 부모의 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Self-identity	School Violence		Family social capital	
		Bullying	Bully victimization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Self-identity		1			
School Violence	Bullying	0.018	1		
	Bully victimization	-.073**	.263***	1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232***	-0.038	-0.024	1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132***	-0.014	0.025	.245***

** $p<.01$, *** $p<.00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Self-identity

Component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0.072	-0.089***	-0.069	-0.085***	-0.072	-0.089***
Academic attainment						
Father	-0.031	-0.038	-0.030	-0.037	-0.028	-0.035
Mother	0.054	0.066**	0.055	0.068*	0.049	0.060*
Family income	0.0000050	0.033	0.0000049	0.033	0.0000043	0.029
Peer attachment	0.305	0.334***	0.300	0.328***	0.244	0.267***
Independent variable: School Violence						
Bullying			0.021	0.044	0.023	0.049*
Bully victimization			-0.039	-0.053*	-0.044	-0.061**
Moderating variable: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1	0.123***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64	0.068**
Constant		1.711***		1.725***		1.420***
R ²		0.120		0.124		0.144
F-value		48.816		35.979		33.228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Dummy variables; Gender, Male=0, Female=1; Academic attainment,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e=0, higher than college graduate=1; School violence(Bullying and Bully victimization), No experience=0, Experience=1.

모형 1은 통제변수인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 애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또래애착, 모친의 최종학력, 성별(남학생)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회귀모델은 F값(48.81)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는 0.120으로 설명력이 12%이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일수록, 모친의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학교폭력 경험의 비행가해와 피해를 추가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35.979)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가해 보다는 비행피해($\beta = -0.053$)가 자아정체감을 낮추는 영향력이 있지만 R²이 0.124로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제외하면 0.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이 통제변인에 비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1과 2에 가족 내 사회자본의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33.228)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는 0.144로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제외하면 2.4%의 설명력을 가지며 모형 2에 비해서는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관심애정이 $\beta = 0.123$ 으로 부모의 친구인지 $\beta = 0.068$ 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부모의 관심애정이 높을수록, 부모의 친구인지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 통제변수인 성별, 모친의 최종학력, 또래 애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측변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조절변인 가족 내 사회자본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Violence and Self-identity

Component	Main effect		Moderating effect	
	B	β	B	β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for Bullying				
Bullying	0.015	0.032	0.013	0.028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5	0.130***	0.096	0.131***
Bullying ×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15	-0.021
Constants	1.823***		1.822***	
R ²	0.141		0.142	
F	43.752***		38.395***	
F changes			0.910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for Bullying				
Bullying	0.016	0.033	0.013	0.027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78	0.083***	0.078	0.082***
Bullying ×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38	0.037
Constants	1.757***		1.753***	
R ²	0.131		0.132	
F	38.560***		34.117***	
F changes			2.753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for Bully victimization				
Bully victimization	-0.030	-0.041*	-0.034	-0.047*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2	0.126***	0.093	0.127***
Bully victimization ×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51	-0.047*
Constants	1.836***		1.837***	
R ²	0.140		0.142	
F	43.363***		38.592***	
F changes			4.608*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for Bully victimization				
Bully victimization	-0.037	-0.051*	-0.211	-0.291*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82	0.087***	0.080	0.085***
Bully victimization ×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55	0.244
Constants	1.782***		1.799***	
R ²	0.131		0.132	
F	38.699***		34.270***	
F changes			2.968	

*p<0.05, **p<0.01, ***p<0.001

(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을 상호작용변인(학교폭력×가족 내 사회자본)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적용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비행가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가해의 경우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관심애정 주효과 β 는

.130(p<.001)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가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2.1%에서 2.2%로 소량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관심애정에 대한 효과만 있고 비행가해에 따른 부모의 관심애정은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조절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둘째, 비행가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가해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친구인지는 주효과 β 값이 .083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비행가해와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1.1%에서 1.2%로 소량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친구인지에만 효과가 있고, 비행가해에 따른 부모의 친구인지 상호작용은 없으므로 조절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셋째,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는 각각 β 값이 $-.041(p < .05)$ 과 $.126(p < .001)$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항을 투입 했을 때, 통제변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2.0%에서 2.2%로 소량 증가하였고 부(-)의 상호작용 효과($\beta = -.047$)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가 부모의 관심애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부모의 관심애정은 비행피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는 각각 β 값이 $-.051(p < .05)$ 과 $.087(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통제변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1.1%에서 1.2%로 소량 증가하였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는 각각의 효과만 있고, 비행피해에 따른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아정체감의 형성의 긍정적 발달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가정교과 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2015 기술·가정 교과서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로, 분석 대상은 중1패널 3차년도(2012) 남녀 2,259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 내 사회자본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교폭력 경험은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행피해,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비행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비행가해와 피해의 관계에서도 비행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비행 피해경험도 높아지고,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부모의 관심애정이 높을수록 부모의 친구인지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제변수(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 독립변수(비행가해 및 피해), 조절변수(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모친의 최종학력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가해는 정적 관계로, 비행피해는 부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모두 정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비행피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부(-)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가 부모의 관심애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부모의 관심애정은 비행피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행 피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투입되었을 때 자아정체감이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에서 부모의 관심애정이 긍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 피해, 피해경험 학생들에게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는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심증과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혼란에 대한 현재의 자아상태, 자아정체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개발이 필요하며, 가정교과의 자아정체감을 수업하는 과정 속에 자신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흥미, 적성 등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신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자아정체감의 올바른 이해와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Lee와 Cho(2014)는 가정교과의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포트폴리오 수업을 적용한 결과,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정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자아정체감에 효과를 나타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자기 수용성, 독특성, 미래계획성이 발달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자기수용성이 높게 나왔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 중 또래애착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높았는데, 이를 통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과 연결되는 인성교육 부분도 가정과 수업에서 함께 다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친구나 가족 등 주변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학교폭력

의 가해나 피해경험 학생들의 경우에도 친구관계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며 남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가정교과는 도덕성 발달과 함께 인지적 측면에서도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족관계, 또래관계, 정서표현 등 정서적·사회적인 발달부분을 다루고 있고(Im & Jeon, 2015), 학교폭력 역시 교우관계의 문제점으로 자기존중, 자아수용, 자신감이 효과적인 대처능력으로 확인되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요소가 필요한데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정과 교육은 적합하다고 말했다(Son, 2013). 이에 가정과 교사들은 7학년 청소년의 발달수업에서 자아정체감을 더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다루며 학년별로 연계할 수 있는 교과수업과, 부모와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포트폴리오, 마인드맵, 역할극 등)의 개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통합적 목표를 두고 가정교과 수업만의 타교과와는 차별성 있는 내용과 수업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보완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달과정을 가정교과에서 수업함으로써 부정적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을 도우며 2015 기술·가정 교과서 개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을 토대로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통제변수인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게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대두되는 학교폭력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분석 자료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빈도 또한 매우 낮았다. 학교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노출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본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면접이나 관찰조사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 등 조금 더 타당성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에서 부합되는 질문인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친구인지’만 선정된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족 내 사회자본의 다양한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대화, 지지, 신뢰, 가정의 심리적 환경, 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과외여부, 전학 및 이사 횟수, 학습조력 및 지원, 자 극적 교육환경,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가족의 존재여부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중, 중1패널 3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추세와, 장기간 지속경험의 비율을 보았을 때,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n K-S, Song K-B, & Lee W-Y (2014). A study on effects of adolescent's developmental level for self identity and sexuality consciousness for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9), 371-40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 W-H (2004).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An Y-S (2010).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and peer attachment, dep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Korea.
- Bae J-H (1993). A comparative study on ego identity development between delinquent adolescences and normal adolescence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1), 71-83.
- Cho J-Y (2014). *The relations among student's type of experience on school violence, change of the typ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Choi C-W (2012).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elf identity on high school stud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Hong H-Y & Yoo T-M (2008).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elf-identity. *Korea Home Economics*, 20(3), 49-64.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H-S (2005). *Relationship among the ego-identity, school adjustment, academic 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Hwang H-J (2013). *The mediation effects of peer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Im J-H (2006). *The influence of self-ident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adaptatio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orea.
- Im J-H & Jeon M-K (2015). 2015 Revision of home economics core concept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Conference*, 105-132.
- Jang B-Y (2009).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 National University, Korea.
- Jeon J-Y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attachment on the ego-ident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Jeong D-C (1997). The rea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violence. *Monthly Citizens and Lawyers*, September.
- Jeong M-R (2004).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identity, meaning of life,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Jeong O-B (2005). *Youth Psychology*. Hakjisa: Seoul.
- Joo W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 and ego-ident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Korea.
- Joung H-G, & Oh K-J (2001). The effects of parental unemployment on children's depression and ego-identity. *Yonsei Science Education*, 49, 93-110.
- Jung J-K (1998). *Influence of adjustments in family and college on 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in late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Kim E-G (2009). *Correlations among parents' breed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ego-identity,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G-J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H-S (2013). An effect of persisten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youths' physical, socio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121-143.
- Kim J-H (2002). *The comparative study on self-identity between misdeed teenagers and common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Korea.
- Kim J-M (2009). *The process of the influence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social capital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S-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T-K (2008).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youth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59-80.
- Kim S-I & Kim N-H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s perception of parents' type of communication and ego-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75-89.
- Kim H-Y, Oh K-J, & Yoon G (1991). A study of inte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conformity to peer group, and delinquenc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99-212.
- Kim H-S, Yi J-T, & Hong S-H (2006). The effects of their school related adjustments and mental health on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24, 79-97.
- Kong G-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ostering attitude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 Min S-J, Choi W-J, & Kim S-H (2003). The study between sport club activities and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13(1), 21-28.
- Lee B-B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identity in adolesc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D-Y (2011).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f children in family at each social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E-Y (2008). *The influence of hope and ego-identity on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Lee K-N (2008). The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211-224.
- Lee K-Y (2002).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Effects of level of income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0), 65-76.
- Lee M-A (2006). *Difference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identity by sex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Lee M-H (2005).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primary school children and the children's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M-H (2006). *Difference in ego-identity statu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by experience in committing schoo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S-K (1999). *A structural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Lee T-Y (1994). *Study of parental foste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H-J & Cho B-E (2014). The effect of using portfolio-based lessons on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its two-year follow up -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dolescents' uni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1), 119-134.
- Lee S-J & Chung O-B (1999).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1(1), 73-87.
- Lee, J-S & Lee H-S (2012). Relationships of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with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4(4), 77-89.
- Lee M-R & Park M-J (2012).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and family social capital.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 1-16.
- Lee M-H & Yoo S-H (2005). Differences in ego-identity statu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by experience in committing school viol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 51-68.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2009). 2009 Revised Home Economics & Technology curriculum.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20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youth's adaptation to school: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I Data Analysis Report 4*.
- O'Moore, A. M & Hillery. B. (1991). What do teachers need to know? In M. Elliott (ed.), *Bullying: A practical guide to coping for schools*. Harlow, UK: Longman.
- Oh S-Y & Song S (2012). The effect of ego-identity, family functioning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o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6(1), 125-138.
- Park A-C (1984). *Identity Research*. Jeongmins: Seoul.
- Park A-C (2000). A review on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in adult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9(2), 47-61.
- Park Y-R (2002).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A-C & Lee S-K (2000). A structural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centered on sex and ag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2), 256-282.
- Park H-B, Lee H-C & Chun J-Y (2008). Influence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community values and life satisfaction.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8(3), 51-76.

- Park S-O & Uh E-J (199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youth ego-identity. *Natural Science* 5. 101-110.
- Roh Y-S (2003). *A study on peer relationship and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o B-Y (1975). *Psychological research on self-identity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o Y (2014). An effect of persistence and degree of exposur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223—253.
- Shin K-W (2010).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Shin S-J (2010). *The influence of self-ident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adaptatio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orea.
- Shin W-Y (2010).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using 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2.
- Shin W-Y & Kang H-A (2008). The effects of poor adolescents'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4), 57-87.
- Son J-Y (2013). *Th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Song H-O (2008).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ego-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Korea.
- Song J-Y (2014).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ego-resilie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Suh Y-J (1998).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 Ji University Seoul, Korea.
- Um M-Y (2000). Identifying the predictor variables of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2, 254-289.
- Yang J-W (2004). Adolescent ego-identity status by their gender and school yea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 Yeom S-R & Choi Y-S (2014).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family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255-266.
- Yoon S-H (201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Korea.
- Yun H-J (2001). *The effect of dance movement therapy on ego-identity of youths from broken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Yun M-S (1989). *Study on the ego identity of a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1패널 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이었으며,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 계수, 독립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 내 사회자본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는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행피해,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모친의 최종학력,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유의미하였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가해는 정적 관계로, 비행피해는 부적 관계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모두 정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비행피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부(-)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5월 25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6월 29일